

지역 소식통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고창군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 환급을 진행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나눔과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감면 대상자는 약 400명이다.군은 지난 18일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발송과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납부 자에 대해 감액 조정된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신청을 받아 감면액과 이자를 반환할 예정이다.

고창군 건설도시과 이종연 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한 권의 책 읽기

'역사의 쓸모' 등 선정

정읍시가 올해 시민과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으로 일반도서에 '역사의 쓸모(최태성)'와 아동도서 '걱정상자(조미자)'를 각각 선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청과 정읍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정읍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한 권의 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일반도서에 선정된 '역사의 쓸모'는 삶이라는 문제에 대해 역사보다 완벽한 해설이 없다는 것처럼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로 잡고 있을 때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아동도서로 선정된 '걱정상자'는 걱정을 바라보는 내 마음 비춘다는 주제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달부터 한 권의 책 독서 릴레이를 위해 지역 내 도서관뿐 아니라 커피숍, 주민센터 등에 도서를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태평로 명품거리로

100년 된 시기성당에 우아한 야간경관 조명 설치 완료

도시공모 선정, 5개 사업 진행 중... 원도심 활성화 속도

정읍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키워드로 4년 연속 도시공모사업에 선정돼 5개 사업 진행이 한창이다.

이의 일환으로, 5개 사업 중 도시활력증진형 도시재생사업인 '시민청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태평로에 자리하고 있는 시기성당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했다.

'시민청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은 원도심에 낙후된 상권 활력 회복과 청년의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태평로 일원에 빛과 창업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시기성당 건축물은 1957년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외벽을 구성한 조적조 건물이며, 뾰족탑이 있는 비잔틴풍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절충형 건물이다.

이에 걸맞게 야간경관 조명은 세련되고 우아하며 밝은 색상의 연출로 웅장한 성당의 이미지와 경건함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설치했다.

점등 시간은 하절기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동절기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태평로 환경정비공사(삼지공원, 아트월, 트렐리스 등)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빛과 창업의 거리' 이미지에 부합하는 쾌적한 거리로 재탄생해 주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태평로가 어둡고 볼 것이 없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새롭게 꾸며진 거리에서 아름다운

빛의 연출 등 볼거리를 통해 다시 걸고 싶은 거리로 시민발길 비탄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시민청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태평로에 자리하고 있는 시기성당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에서 목조건축 장인의 꿈 키워요"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실습장 인구유입 · 지역 활력 효과

고창군이 전북대 고창캠퍼스의 한옥실습장을 활용한 인구유입 사업을 펼쳐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020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고창군 한옥전문인 양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구유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는 고창청년을 위한 목조건축 교실, 집수선 건축 교실, 한옥건축 교실 등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는 전국 최고의 한옥실습교육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에 고창군은 지역 청년들에게 근처에서 한옥 제작 등의 전문교육 기회를 만들어 주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 수요 후에는 지역 내 빈집과 노후건축물을 수리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명숙 고창군 율령행정과장은 "청

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해 청년이 정착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행안부가 대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사업을 모집했다. 전국에서 31개 시·군이 지원해 1차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를 통하여 총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이어 병해충 조기 차단 힘써

부안군은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해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으로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자처리제는 이앙 7일전부터 이앙 당일 사이 모판에 단 한번 처리만으로 벼농사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병해충인 저온성 해충부터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밀구류 등을 예방 할 수 있어 생육기 농약 살포회수를 줄이고 농자재 부담 감소로 생산비를 절감한다.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이외에도 4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 조례인을 재정보고, 5월 돌발병해충 발생 및 의심 지역 170ha에 긴급방제 예비비 238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농협과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예찰과 분석결과에 따라 병해충 조기차단 방제에 힘을 쓰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상자처리제는 전체면적의 80%에 해당하는 1만 888ha의 약제를 공급하여 7월 하순까지 발생되는 병해충의 피해를 차단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적기작랑의 자



부안군은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해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으로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 투입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실용적인 과학농업을 실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19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접수가 시행되고 있는 부안읍사무소에 현장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차등 지급되며 세대주가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카드를 신청하거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선불카드 및 부안사랑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선불카드 및 부안사랑상품권은 부안판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은 온라인 및 각 카드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

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원씩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신청을 마친 한 군민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많이 힘든 상황인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에서도 군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사업 공모 선정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주도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향후 2년간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공모에는 전국 36개 사업신청자가 응모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부안군 등 최종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부안 마을만들기 협의체'를 주체로 지역의 생태관광자원, 농업문화유산, 전통문화자원을 발굴·재창조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여행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협의체 및 농가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